

평화 × 역사 × 자연
행주동(幸州洞)행

● 평화누리길은 산과 강, 도시와 농촌마을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 더불어 행주산성에서는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를,
한강변 철책 구간에서는 한국전쟁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다.
3월 걷기 좋은 그 길에서 고양의 평화와 역사, 자연과 마주한다.

글/사진 정호철(고양시 관광서포터즈)



01 고양에서 만나는
평화누리길과 한강 철책

평화누리길 중간지점을 기점으로 한 방향으로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혼자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사람, 아버지와 자전거 타는 딸 등 다양한 고양 시민을 만날 수 있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이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 보기를 추천한다. 평화누리길만의 자연환경을 살려 이 길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함께 꾸미면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발길을 재촉한다.

김포대교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평화누리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강 철책을 볼 수 있다. 한강 철책은 군 시설로 그 흔적을 통해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일각의 시선으로는 남북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왜 남겨 두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러한 시설을 보여주면서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곱씹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양 평화누리길 코스 안내

- 평화누리길4코스
행주산성 ↔ 호수공원(선인장전시관) 총 거리 12.5km
- 평화누리길5코스
호수공원(선인장전시관) ↔ 동패지하차도 총 거리 7.8km

02 고양 최고, 최초의 성당
행주성당



행주성당은 행주외동에 있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성당이다. 행주성당은 1899년 5월, 20여 평의 맞배 지붕 양식에 다섯 칸짜리 한옥이었다. 이후 1928년 이축했으며, 1949년 증축을 거쳤는데 이때 과거의 상량문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문화재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 2월에는 근대종교건축물 등록문화재 제455호로 지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행주성당을 건립한 지 120년 되는 해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다. 성당 벽 한편에는 성당의 역사를 적어놓은 설명판이 있어 120년의 전통과 순교자의 흔적을 알 수 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 설명문들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곤 한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44번길 50(행주외동)

03 일몰이 아름다웠던
행주나루터



서울의 한강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곳은 고양시만의 한강 변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다. 위치는 역시 행주외동이며, 평화누리길의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행주나루터'라는 표지판을 지나 50미터 걸어가다 보면 이 나루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행주나루터에서는 남다른 일몰 풍경을 볼 수 있다. 한강과 한강변의 살짝 붉게 물든 색감이 풍경 사진은 물론, 인생 사진을 찍기에도 좋은 장소로 만들어 준다. 나루터는 행주대교 바로 아래에 있는데, 멀리 산을 배경으로 한강에 비친 일몰은 장관이었고, 나루터에 있는 배와 갈대밭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나루터에 정박해 있는 작은 어선이 그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그리고 있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